

유럽 이슬람 공동체의 최근 동향과 전망

: 서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안신¹

1. 서론

기독교와 이슬람은 불교와 더불어 선교하는 대표적인 세계종교들이다.² 오랫동안 서양의 종교로 인식되어 온 기독교(그리스도교)는 이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태평양과 같은 비서구 지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부흥하고 있고, 아랍(Arabia)에서 시작된 이슬람도 북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를 넘어 최근 유럽에서까지 상당한 세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 이슬람과 기독교에 대한 종교현상학적 비교연구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서구 중심적 시각에 편향된 ‘동양학’(Orientalism)³ 입장에서 종교의 ‘일반적’ 특징을 획일적으로 묘사하는 ‘세계종교’(world religion)를 연구하는 대신에,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통하여 표출되는 종교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디아스포라 종교’(diaspora religion)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자는 제안이 있다.⁴ 한편 서구학계에서 이슬람이 지금

1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연구원,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2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종교적 진리를 전한다는 점에서 ‘광의의 선교종교’이지만, 특히 불교, 기독교, 이슬람은 선교·포교의 특징이 상당히 강조된다는 점에서 ‘협의의 선교종교’이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선교 양태에 대해서는 안신, “이슬람 다와와 기독교 선교에 대한 비교연구 - 폭력과 비폭력의 경계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50집, 2008년 봄, pp. 219-245를 참고하라.

3 Edward W. Said, *Orientalism*, (New York: Random, 1978)을 참고하라. 에드워드 사이드에 따르면, 서구학자들은 이슬람 지역을 포함한 동양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묘사해 온 것이 아니라, 서구학자들이 보기 원하는 모습으로 재구성하거나 서구적 잣대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만을 일반화시켜거나 왜곡해 왔다.

4 John R. Hinnells, “The Study of Diaspora Religion,” ed. John R. Hinnells, *A New Handbook of Living Religions*, (Oxford: Blackwell, 1997), p. 684. 힌넬은 인류학자 기어츠가 모로코의 이슬람과 동남아시아의 이슬람을 비교한 사례를 ‘디아스포라 종교’ 연구의 대표적 사례로 들고 있다.

처럼 ‘세계종교’로 인식되기까지 오랜 ‘왜곡’과 ‘조작’의 역사가 있었음이 지적되고 있다. 19세기 유럽 지식인들은 기독교와 불교를 보편적인 “아리안족의 종교”로 분류하면서도, 이슬람을 국지적인 “셈족의 종교”로 규정했다. 유럽인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기독교와 불교는 그 종교가 기원한 이스라엘과 인도에서 그 세력을 점차 상실하는 대신에 그 종교가 포교된 다른 문화권에서 오히려 번성하는 ‘보편 종교’의 특징으로 설명되었지만, 이슬람은 처음 시작된 아라비아 반도에서 그 세력을 지금까지 유지하며 다른 지역으로 독특한 문화를 확장하는 “민족종교”로 분류되어 왔다.⁵

본 논문에서 필자는 최근 서양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이슬람과 무슬림 공동체의 동향을 분석하고 그 변화의 양태를 전망하고자 한다. ‘이슬람과 서양’(Islam and the West) 사이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 안에 이슬람’(Islam in the West)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특히 서유럽국가들 중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무슬림 공동체의 역사적 형성배경과 특징을 분석하고, ‘유럽 이주 무슬림들’(European Muslims)이 정체성의 문제를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결론을 대신하여 유럽 이주 무슬림의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다문화현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21세기 기독교의 이슬람 선교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이슬람과 기독교: 차이점과 유사점

이슬람과 기독교는 상호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첫째, 기독교인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믿지만, 무슬림은 ‘일위일체’ 알라⁶의 유일성과 예언자 무함마드의 마지막 사도됨을 고백한다. 둘째, 기독교인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을 삶의 목표로 삼지만, 무슬림은 알라의 참된 계시로서 꾸란(Qur’an)과 무함마드의 언행인 전승(Sunna)을 삶의 지침과 사회의 법으로 실천한다. 셋째, 기독교

5 Tomoko Masuzawa, *The Invention of World Religions*,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186–197. 19세기 지식인들은 이슬람이 기독교와 불교처럼 ‘세계종교’의 성격을 갖게 된 것은 셈족종교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6 한국 무슬림은 알라를 ‘하나님 혹은 알라 하나님’으로 번역한다. 최영길 역, 『성 꾸란-의미의 한국어 번역』(메디나: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 1997)을 참고하라.

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무슬림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며, 매일 다섯 차례 예배와 ‘금요’ 합동예배를 드린다. 넷째,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를 강조하지만, 무슬림은 최후 심판의 날에 부활하여 믿고 선행한 대로 천국이나 지옥에서 영생함을 믿는다. 이와 같이 기독교와 이슬람은 신학적, 의례적, 윤리적 차이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기독교인과 무슬림은 유일신 사상을 공유한다. 위대한 하나님의 실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계시되었고,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그 계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기독교인과 무슬림은 가지고 있다.

이슬람은 7세기 초 아랍에서 시작된 종교이지만, 현재 16억에 이르는 거대 종교로 성장했다. 인종적으로도 다양한데, 아랍 무슬림은 2억이며, 나머지 14억은 비아랍계 무슬림이다.⁷ 이슬람은 초기부터 매우 빠르게 주변의 영토를 장악했으며, 단시간 내에 기독교와 불교에 버금가는 ‘선교종교’가 되었다. 지금 유럽의 주요 국가와 도시마다 이슬람 성원(마스지드, 모스크)이 세워져 있고, 거리마다 무슬림 상가와 베일(히잡)을 두른 무슬림 여인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전통적인 기독교국가(Christendom)였던 서유럽 지역으로 무슬림 노동자와 유학생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유럽의 ‘비어가는’(empty) 성당과 교회가 이슬람 성원으로 개축되어 무슬림으로 ‘채워지는’(filled) 사례도 발견된다. 처음 유럽에 정착한 1세대 이주 무슬림에게 언어적 장벽이 컸지만, 2세대와 3세대 무슬림은 유럽의 언어와 문화에 동화되어 가며, ‘유럽 무슬림’(European Muslim)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인의 눈에 무슬림은 아직까지도 유럽공동체의 연합과 결속을 깨는 위험한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2001년 9·11 사태 이후 일련의 테러사건으로 유럽인이 무슬림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게 되었다. 유럽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곤 한다.⁸

7 비아랍계 무슬림에 대한 연구로는 전재욱 편, 『아시아 무슬림 공동체』, (서울: 예명, 1998)를 참고하라. 무슬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2억), 파키스탄(1억 5천), 인도(1억 5천만), 방글라데시(1억 3천만), 터키(7천만), 나이지리아(6천 7백만) 등은 비아랍계 지역이며, 비아랍계 무슬림이 사용하는 언어는 400여 가지로 다양하다. 그들은 아랍어 외에도 벵갈어, 펀잡어, 자바어, 우르두어 등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이슬람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는 적어도 아랍어와 파견되는 지역의 토착어를 구사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8 이 질문들은 필자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영국 에딘버러대학교와 페이스미션바이블칼리지에서 세계종교를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받은 내용이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등장한 이슬람이 왜 유럽으로 이주하여 오는 것인가?”

“우리 유럽인은 무슬림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이웃 혹은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슬람의 확산에 대하여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대처를 해야 하나?”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푸란”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한 손에는 성경 또 다른 한 손에는 스스로를 방어 할 그 무엇인가’를 들고 있어야 하지는 않을까?”

2013년이면 터키가 유럽연합의 정식 회원국이 된다는 언론의 보도는 유럽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슬람은 세계 66억 인구 가운데 16억의 인구가 믿는 세계종교입니다(4명 중 1명이 무슬림이다). 무슬림은 선교를 통한 개종보다는 무슬림 가정의 출산을 근간으로 급성장하는 종교이다. 인구의 50%를 기독교와 불교가 점유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이슬람은 다양한 문화권의 경계를 넘어 적극적인 선교[다와]를 해 왔다. 1955년 한국전쟁에 참전한 터키군 이슬람종교지도자[이맘]가 한국인을 처음 선교한 이래로 현재 한국에는 약 15만 명의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국 무슬림이 약 4만 명이고 외국인 무슬림은 약 11만 명에 이른다.⁹

앞으로 한국에서 이슬람의 확산은 꾸준히 전개될 것이다. 『한국 이슬람 50년사』에 따르면, 무슬림이 이슬람을 한국사회에 선교하기 위하여 극복해야 할 세 가지 어려움이 있다.¹⁰ 첫째는 무슬림은 한국사회 전반에 기독교세계관의 영향을 받아 왜곡된 이슬람의 이미지가 유포된 상황을 이슬람 선교의 큰 걸림돌로 자각하고 있다. 둘째로, 소수종교인으로서 금요일의 합동예배와 하루 다섯 차례의 의무예배를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로, 한국 무슬림은 외국인 이슬람 선교사[다이]가 지닌 이슬람과 한국 문화 및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¹¹ 이러한 한국에 산재한 이슬람 선교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무슬림은 21세기 한국에서 이슬람의 확산을 위한 긍정적 요소로서, ① 한국인의 낮은 문맹률과 고학력 지식인, ② 유교적 세계관과 이슬람의 유사성, ③ 한국인의 유일신 개념(하나님), ④ 1970년대 중동건설에 파견된 2백만 한국인의 이슬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⑤ 외국인 무슬림들과의 국제결혼증가 등을 들고 있다. 결국 “

9 한국 이슬람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재욱, 『기독교와 이슬람』(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pp. 74-94을 참고하라. 한국에 거주하는 무슬림은 불법체류자를 포함해서 약 10만 명에서 많게는 20만 명까지 추산되고 있다. 최근 서울 중앙 성원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무슬림은 약 3만 5천 명이고 외국 무슬림이 7만 명 정도라고 말한다.

10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한국 이슬람 50년사』(서울: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2005), pp. 41-42.

11 한국 이슬람 성원을 돌며 수개월 동안 이주 무슬림에게 설교를 하기위하여 입국하는 파키스탄 젊은이들이 있다.

체계적"이며,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이슬람 선교[다와]가 이루어진다면, 대다수 한국인이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¹²

현대 세계 이슬람의 국가별 분포를 보면, 이슬람의 선교 열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이슬람이 발생한 아라비아반도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뻗어 있으며,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 지역을 장악했고, 북쪽으로는 터키, 발칸반도, 중앙아시아, 중국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수단을 지나 동·서아프리카 지역을 감싸고 있다. 무슬림은 정치, 경제, 교육을 통한 총체적 선교방식을 채택하여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기독교인을 포함한 타종교인들과 경쟁하며 지속적 확장을 하고 있다. 이제 유럽의 이슬람과 무슬림 공동체의 최근 동향을 살펴하자.

3. 유럽의 세속화: 후기 기독교시대(post-Christian Era)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이 세속화되면서 이슬람은 무신론과 함께 기독교 다음으로 큰 종교가 되었다. 지난 30년간 거의 3배로 증가한 무슬림 공동체의 성장에 주류 기독교인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세속적 유럽인들은 이슬람 근본주의의 등장을 목격하면서,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어야 할 종교가 공적 영역으로 가감 없이 표현되는 현실에 무척 당황하며 불편해 하고 있다. 전통적인 유럽은 이미 '세속화'(secularization)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슬람이 유입되고 다양한 신종교들이 등장하면서, 종교학자들은 '세속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신성화'(sacralization)나 '마법화'(re-enchantment)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현대 유럽의 종교변화를 설명하고 있다.¹³

기독교의 주일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신자의 수가 급격히 줄면서 교회가 '비어가고' 있고, 문을 닫는 교회도 늘어가고 있다.¹⁴ 심지어 교회건물이 유흥업소나 이슬람 성원으로 바뀌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03년 유럽 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12 국문본보다 영문본이 이슬람의 선교의지를 더 잘 표명하고 있다. "If the systematical and effective Da'wah projects are set up and continuous Da'wah activities are carried out without pausing under the banner of the Korean Muslim Federation, many of 45 millions of Koreans will embrace Islam."

13 Christopher Partridge, *The Re-Enchantment of the West*, 2 vols. (London: T & T Clark, 2005),

14 Robil Gill, *The 'Empty' Church Revisited*. (Hants: Ashgate, 2003)를 참고하라.

에 따르면,¹⁵ 유럽인들 가운데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의 국가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덴마크 3%, 스웨덴 5%, 노르웨이 5%, 프랑스 8%, 독일 9%, 체코 9%,
 헝가리 11%, 스위스 11%, 벨기에 11%, 네덜란드 12%, 영국 13%, 룩셈부르크 13%,
 오스트리아 19%, 스페인 20%, 슬로베니아 20%, 그리스 26%, 포르투갈 29%,
 이태리 32%, 폴란드 54%, 아일랜드 56% 등

이 자료는 기독교세계관이 유럽인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 기독교는 신자 감소와 급격한 노령화를 직면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당이나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이처럼 대다수 유럽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제도화된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유럽인들은 기독교세계관이 사회를 변혁하는 힘을 상실한 ‘후기 기독교 시대’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유럽인들은 천 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를 경험했지만, 이제 기독교공동체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열심과 헌신을 찾아볼 수 없고, 파편화된 개인적 구도자로 남아 있을 뿐이다.

한편, 2005년 유럽척도조사(Eurobarometer)에서 종교와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을 했다.¹⁶ 첫째,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 중 35%가 “자주”(often) 생각한다고 답변했고, “가끔”(sometimes) 생각한다는 사람이 39%로 나타났다. 반면에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한 사람은 8%뿐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의 존재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52%, 영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27%, 신도 영의 존재도 믿지 않는 사람이 18%로 각각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무슬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터키에서는 응답자 중 95%가 신의 존재를 믿고 있는 반면에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신의 존재를 믿는 응답자는 각각 38%, 34%, 47%로 나왔다는 사실이다.

결국 세속화된 유럽사회에서 더 이상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유럽인들’ 가운데 ‘신의 존재를 확신하는 무슬림들’이 이주하여 정착하면서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가 바로 오늘날 유럽인들이 봉착한 종교적 문제이며, 동시에 유럽 무슬림과 기독교인이 함께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15 *European Social Survey* (2003), <http://www.europeansocialsurvey.org>

16 European Commission, *Special Eurobarometer 225/ Wave 63.1*, June 2005.

4. 유럽의 과거: 식민지 확장(Colonial Expansion)의 역사

위에서 살펴 본 ‘세속주의’의 영향 아래 발전한 ‘후기 기독교 시대’의 도래라는 현상과 더불어, 현대 유럽사회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유럽 제국주의의 식민지 확장의 역사이다. 유럽의 확장과 발전은 제 3세계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결과이기 때문에 선교의 역사를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왜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선교’라는 말을 들으면 ‘죄책감’을 갖는 것일까? 예일대의 종교학자 라민 썬네(Lamin Sanneh)는 기독교인을 포함한 서양인은 선교에 대하여 일종의 ‘죄의식’(guilty complex)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로 서양의 제국주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기독교와 선교사들이 그러한 확대를 옹호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유럽 식민주의자들이 토착민들을 착취하고 지배할 때, 기독교의 교리로 혹은 기독교 선교의 명분으로 침묵하거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했다는 것이다.¹⁷

본 논문에서 필자는 서양이 식민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영토와 관련된 사례만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¹⁸ 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배하면서, 상당수의 무슬림들이 서구 식민주의 지배 아래 직·간접적으로 놓이게 되었다. 1920년까지 독립을 유지했던 무슬림 국가는 터키, 아프가니스탄, 페르시아, 아라비아반도일부에 불과했다. ‘이슬람의 영토’(다르 알 이슬람)는 서양의 식민지배를 받거나 간접적으로 서양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유럽은 ‘이슬람의 영토’를 임의대로 분할했고 군주제 전통도 점차 축소시켜 나갔다. 프랑스는 1920년까지 북아프리카의 거의 전 지역을 식민지로 삼았고, 영국은 1882년 이후 이슬람 세계의 문화적 중심지인 이집트 점령을 시작으로, 19세기 말에 수단과 소와힐리어가 통용되는 거의 모든 동아프리카 지역을 점령했다.

사실 영국의 이슬람지역에 대한 식민지정복은 프랑스를 압도했다. 인도대륙에서 무굴 제국(1526-1858)이 번성했던 16세기 초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영국정부는 동인도회사를 설립하여 상업적 교역에 힘쓰다가, 무굴제국이 쇠퇴하는 틈을 타 정치적으로 프랑스

17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폭력적 기독교 선교의 역사는 Luis N. Rivera, *A Violent Evangelism: the Political and Religious Conquest of the America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를 참고하라.

18 이슬람의 영토에 대한 서구 식민지 지배의 역사에 대해서는 Hugh Goddard, *A History of Christian-Muslim Relations*, (Chicago: New Amsterdam Press, 2000)와 Malise Ruthven, *Historical Atlas of the Islamic Wor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를 참조하라.

를 제압하여 인도대륙(1858-1947)을 식민지로 삼아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각각 분리 독립할 때까지 통치하였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영국은 말레이반도의 국가들을 통치했고, 네덜란드는 자바와 수마트라를 중심으로 현 인도네시아 지역을 식민지로 삼았다. 영국의 보호 아래 팔레스타인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정착했으며, 20세기 초에 영국은 요르단과 이라크를 점령했다. 한편 프랑스도 레바논과 시리아를 통치했으며, 이태리는 리비아와 소말리아 지역을 점령했다.

대부분 이슬람 지역은 20세기 초까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태리 등의 지배를 받았으며, 이렇게 정치적으로 유럽의 식민통치를 받던 이슬람 지역의 토착민들이 유럽으로 본격적인 이주를 시작하게 되었다. 2차 세계 대전을 경험하며 유럽의 제국주의가 쇠퇴하였고, 급격한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으며 종교적으로 일종의 '진공상태'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종교적 '진공상태'에 등장한 새로운 종교 공동체가 바로 유럽에 이주한 무슬림인 것이다.¹⁹

5. 유럽의 이주 무슬림(European Muslim) 현황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서유럽은 제국주의의 식민지팽창으로 무슬림들이 거주하는 이슬람 지역을 식민지로 정복했다. 그 결과 전통적인 기독교국에 살던 유럽인들은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게 되었고, 반면에 식민지 지배 아래 있던 무슬림들은 신분상승과 근대화 의 꿈을 꾸며 학생이나 노동자의 신분으로 유럽에 이주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한 이슬람의 조사(islamicpopulation.com)에 따르면, 세계 무슬림은 약 16억에서 18억까지 추산되며, 그 중에 터키(7천만)를 제외하면, 약 5천만 무슬림이 유럽에 살고 있다.²⁰

서유럽 - 프랑스(612만), 독일(305만), 영국(151만), 네덜란드(89만), 벨기에(38만)
스위스(23만), 오스트리아(19만) 등

19 현재 유럽에서 '종교적 진공상태'를 가정하는 일은 설득력이 없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서유럽에서 발전한 세속주의가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표현과 활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종교적 진공상태'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20 <http://www.islamicpopulation.com> (2008년 10월 20일 접근)

북유럽 - 스웨덴(28만), 덴마크(14만), 노르웨이(5만) 등

동유럽 - 러시아(2700만), 불가리아(91만), 루마니아(22만), 우크라이나(21만), 폴란드(4만) 등

남유럽 -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234만), 알바니아(224만),

세르비아/몬테니그로/코소보(203만), 이태리(142만), 마케도니아(60만),

스페인(55만), 그리스(17만), 크로아티아(13만), 포르투갈(5만) 등

이러한 이슬람 측의 집계와는 달리, 미국 정보국(CIA)의 통계에 따르면, 약 14억 무슬림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통계와 자료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무슬림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대동소이하다. 서유럽에서 6%이상의 무슬림이 거주하는 국가는 프랑스(6-10%)뿐이다. 5%이하 1%까지의 무슬림이 거주하는 서유럽국가는 네덜란드(5%) 독일(4%), 스위스(4%), 벨기에(4%), 덴마크(3%), 스웨덴(3%), 영국(3%) 등이 있다. 한편 국민 중 50만 명 이상의 무슬림이 거주하는 국가는 프랑스(4-6백만), 독일(4백만), 영국(160만), 네덜란드(90만), 스페인(90만), 이태리(80만) 등이다. 나머지 10만 명 이상의 무슬림이 거주하는 지역은 벨기에(40만), 스웨덴(27만), 덴마크(10-20만) 등이다.

참고로 남유럽에서 터키(99%)는 7천만에 이르는 명실상부 이슬람국가이다. 계획대로 2013년 이후에 유럽연합(EU)의 정식 회원국이 된다면 서유럽의 무슬림인구는 1억 2천을 쉽게 넘어설 것이다. 그리고 알바니아(70%)에는 270만의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다. 동유럽에서 러시아(10-14%)에만 무려 천 5백만 명 이상의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다. 중부유럽에는 오스트리아(4%)에 34만 명의 무슬림이 있고, 발칸반도지역에는 코소보(90%), 보스니아와 헤르체코비아(40%), 마케도니아(32%), 몬테니그로(20%), 불가리아(12%), 세르비아(3%) 등지에 약 8백만의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다. 이제 전체적인 유럽 무슬림에 대한 현황이 분석되었으니 서유럽을 중심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의 무슬림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도록 하자.²¹

5.1. 영국 이주 무슬림(British Muslim)의 현황: 다문화주의의 한계

영국은 전통적으로 개신교 국가이다. 잉글랜드지역에는 성공회(Church of Eng-

21 유럽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Jacques Waardenburg, *Muslims and Others - Relations in Context*, (Berlin: Walter de Gruyter, 2003), pp. 308-335를 참고하라. 특히 와덴버그가 제시한 참고문헌은 앞으로 유럽의 국가별 이슬람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유익하다.

land), 스코틀랜드지역에는 장로교(Church of Scotland)가 국교(state religion)로 공인되어 있다. 2001년도 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인구 6천만 가운데 기독교인이 71.6%, 무슬림이 2.7%, 힌두교인이 1%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유대교, 시크교 등 거의 모든 형태의 세계종교들이 영국에 존재하고 있다. 160만 영국 무슬림들은 대영제국의 식민지였던 남아시아로부터 이주한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영어권 동부 아프리카에 정착해 살던 남아시아인들이 주로 이주해 오다가 점차 남아시아에서 영국으로 직접 이주해 왔다.²²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표현이 있듯이 영국은 과거 광대한 식민지영토의 중심이었고 현재에도 구 영연방(Commonwealth)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²³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영국시민 가운데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차이로 인하여 지역별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영국에서 무슬림들의 생활방식은 (세속주의를 표방하는 프랑스에 비교해서) 상당히 존중을 받는 편이다. 종교는 개인적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국가종교의 형태나 다문화 종교교육을 통하여 자주 공론화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영국인은 영국사회의 관습과 규칙을 존중하는 외국인을 환영해 왔기 때문에 ‘온건한’ 무슬림들에게는 대체로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오랜 귀족사회를 경험한 영국사회는 지금도 계층의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영국 이주 무슬림들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 직접 이주해 오거나, 일단 동아프리카에 머물러 수 세대 동안 체류하다가 영국으로 이주해 온 경우도 많다.

남아시아의 계층구조(카스트)에 익숙해 있는 영국 이주 무슬림들은 16세기에서 19세기 중엽까지 융성했던 무굴제국을 그리워하며 강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나타낸다. 그 결과 남아시아 이슬람의 신학적 다양성이 영국 무슬림 공동체에서도 전이되었다. 물론 남아시아 이외에 중동과 나이지리아, 케냐, 탄자니아 등 영어권 아프리카지역에서도 많은 무슬림들이 영국으로 이주해 왔다.

영국에서 무슬림들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는 전통적인 이슬람학교(마드라싸)가 번성

22 영국의 종교상황과 종교교육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신, “잉글랜드와 웨일즈 종교교육의 최근 변화와 한계 - 1988년 교육개혁법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2007년 여름, pp. 241-261를 참고하라.

23 영연방(Commonwealth of Nations)은 20억 인구의 53개국으로 이루어진 국제기구로서 대부분 영국제국의 구 식민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11억), 파키스탄(1억7천), 방글라데시(1억5천), 나이지리아(1억4천), 영국(6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고 있다. 북인도와 파키스탄의 이슬람학교를 모델로 삼은 이슬람 교육기관(다르 알 울loom, ‘지식의 집’)에서는 아랍어와 우르두어를 교육한다. 신비주의를 강조하는 바렐위(Barelwi)²⁴와 부흥주의를 표방한 데오반디(Deobandi)²⁵는 상호 경쟁관계를 이루며 쿠란과 하디스(무함마드의 언행록)를 포함한 이슬람학을 교육하며 차세대 무슬림지도자(이맘)를 양성하고 있다. 영국에서 법학자(올라마)는 이러한 전통적인 이슬람학교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해 왔지만, 최근 영국 무슬림의 2세대와 3세대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우르두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한 지도자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²⁶ 지금도 아랍어와 우르두어는 과거처럼 계속해서 이슬람학교에서 교육되고 있지만, 영어로 번역된 이슬람 관련서적이 출판되면서 영국 무슬림의 새로운 상황에 맞는 해석들을 발전시키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으로부터 직접 서적이 수입되고 있고, 남아시아로부터 방문하는 무슬림 종교지도자들의 강연도 늘고 있다.

차세대 영국 무슬림들은 인종적으로는 “남아시아인”으로, 종교적으로는 “무슬림”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영국인”으로 그들의 복합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1990년대부터는 ‘인종적’ 호칭보다 ‘종교적’ 호칭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²⁷ 무슬림 남성, 여성, 청소년 단체들이 창설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영국에서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매우 활발한데 비하여, 무슬림 여성의 활동은 아직까지 저조한 편이다.²⁸

2003년 3월 영국정부가 미국정부가 주도하는 이라크전쟁에 참전하자, 영국 무슬림 이주 공동체 안에 일부 급진적인 그룹이 테러를 시도했다. 가장 최근의 사건은 2005년 7월

24 수니파 법학자 아흐마드 라자 칸(Ahmad Raza Kahn, 1856-1921)이 설립한 수니파 신비주의 단체이며 하나피 법학파에 속한다. 칸은 우르두어로 쿠란을 번역했고, 다른 무슬림과의 대화를 강조했으며, 수학, 물리학, 천문학, 교육학 등에 관한 다양한 저서를 출판했다. 바렐위는 무함마드가 빛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믿으며, 비정치적인 성격을 지니면서도 활발한 선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25 수니파 이슬람 단체로서 1866년 데오반드 이슬람학교(Darul Uloom Deoband)에서 시작된 인도의 부흥주의 운동이며, 하나피 법학파에 속한다. 영국의 식민주의에 저항하며 지하드를 강조해 왔고, 2008년 2월 반테러리즘학회를 열어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를 비판했다.

26 이와 비슷한 현상이 북미와 유럽에 있는 한국 교회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차세대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목회를 위해 한국어 목회보다 영어 목회가 강조되면서 목회자에게 이중 언어구사가 요구되고 있다.

27 영국 남아시아 이주자의 종교적 성향에 대해서는 Kim Knott, "The Religions of South Asian Communities in Britain," ed. John R. Hinnells, *A New Handbook of Living Religions*, (Oxford: Blackwell, 1997), pp. 756-774를 참고하라. 노트가 인용한 1992년 조사에 따르면, 규모면에 무슬림(120만), 시크교인(50만), 힌두교인(30만), 자이나교(2만), 조로아스터교(5천) 순으로 이주했다.

28 예를 들어, 2005년 하원의원선거에서 무슬림 남성 칸(Sadiq Kahn)과 말리크(Sahid Malik)가 당선되는데 비하여, 아직까지 여성 무슬림 하원의원은 선출되지 않았다.

7일 런던 폭탄테러사건이다. 아침 런던 시민들의 출근시간에 맞추어 런던 지하철과 2층 버스에서 폭탄이 폭발했다. 그 자리에서 4명의 범인과 52명의 시민이 사망했고, 7백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을 주도했던 30세 모함마드 칸(Mohammad Sidique Kahn)은 잉글랜드에서 태어나 성장한 전형적인 차세대 영국 무슬림이었다. 그는 잉글랜드 중부 리즈에 살던 파키스탄계 무슬림 부친과 인도계 무슬림 모친 사이에 태어나 영국에서 대학을 나온 청년이었다. 2005년 9월 1일에 칸의 비디오테이프가 공개되면서 영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칸은 폭탄테러사건을 준비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²⁹

나와 수 천 명의 나와 같은 사람들[무슬림들]은 우리가 믿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 왔다. 우리의 목적과 방향은 이 세상이 제공해야만 하는 유형의 물질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종교는 이슬람이다.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알라]께 순종하고 마지막 예언자이신 사도[무함마드]의 뒤를 따르는 것이다. 당신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정부들은 세계에 있는 나의 동포[무슬림]들에 대한 잔학행위를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정부를 지지하는 당신에게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듯이, 나도 무슬림 형제와 자매를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복수할 책임이 있다. 우리가 안전을 느낄 때까지 당신은 우리의 목표가 될 것이다. 당신들이 나의 동포[무슬림]들에 대한 폭탄, 가스, 감옥, 고문 등의 사용을 멈출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쟁 중이고 나는 군인이다. 이제 당신들도 이러한 상황의 진실을 맞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유언을 남긴 칸과 함께 사건을 함께 모의하고 실행했던 무슬림 청년들도 영국시민들이었다. 대부분 파키스탄 무슬림의 후손들로서 사건 전에 파키스탄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다. 파키스탄계 무슬림 탄위(Shehzad Tanweer, 22세)는 2004년 파키스탄에 가서 이슬람을 공부했다. 자마이카계 무슬림 린세이(Germaine Lindsay, 19세)는 이슬람으로 개종한 뒤에 급진적인 무슬림이 되었다. 18세의 하시브 후세인(Hasib Hussein)도 파키스탄을 방문했고 메카 순례를 마친 인물이었다. 이 사건이 미국의 9·11 테러사건보다 더 큰 충격을 영국 사회에 준 이유는 범인들이 바로 외국인이 아닌 영국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교육받은 영국 청년이었다는 점이다. 영국이 자랑하는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시민교육을 받은 영국 무슬림들에 의하여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계획되고 실행되었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영국이 지향해 오던 ‘다문화주의’ 교육에 대하여 영국시민들은 의문을 제

29 BBC News, 2005년 9월 1일. 알 자지라(Al Jazeera) 카타르 방송이 공개한 비디오테이프 내용의 전문을 실고 있다.

기하고 있다. 한 사회에 살면서 기독교가치관과 이슬람가치관이 상호 분리되어 교육되어 왔고, 그렇게 교육받은 대부분 이주공동체의 청년들은 자신의 인종적 벽 혹은 종교적 벽 안에 고립된 채 영국 주류사회로부터 소외되어 불만을 키워왔던 것이다. 영국 주류 기독교인들과 대다수 온건한 무슬림들도 이제 소통과 공전을 위한 ‘평화적 대화의 문화’가 확립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할지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최근에 영국 무슬림 여학생이 학교에서 정해진 파키스탄 방식의 히잡(머리 가리개)을 착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방글라데시 방식의 히잡을 착용할 권리를 주장한 바 있다.³⁰ ‘교복 자율화’라는 대안도 있었지만, 영국 공립학교의 교장들은 무슬림 학생이 다수인 경우에 학교에서 적절한 교복에 대한 학칙을 학교장과 이사회회의 재량으로 정하고 있다. 앞으로 학생들의 연대감과 다양한 문화의 독특성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교복과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2008년 10월 신임 이민국 국장 필 올라(Phil Woolas)가 학교에서 히잡이 공동체의 분리를 조장한다는 이유를 들어 착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히잡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³¹

5.2. 프랑스 이주 무슬림(French Muslim)의 현황: 세속주의와의 긴장과 갈등

프랑스는 20세기에 북아프리카를 식민지로 통치하고 근동지방(레바논과 시리아)을 정치적으로 장악했다. 알제리는 독립전쟁(1954-1962)을 통하여 프랑스사회에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인 공동체의 기억을 남겼다. 프랑스정부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 이주해 온 북아프리카출신 무슬림 이민자들의 2세대와 3세대는 지금 프랑스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미국 국무성 자료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의 6천만 인구 중 10%인 6백만 정도가 무슬림이다(프랑스인 10명 중 1명이 무슬림인 셈이다). 나머지 90% 중 85%는 천주교, 2%는 개신교, 그리고 1% 정도는 유대인이다.³² 프랑스는 다른 어느 서유럽 국가보다도 전통적으로 이민자들의 수가 많은 국가이다. 프랑스정부는 1872년 이래

30 *The Times*, 2005년 7월 30일. 학교에서 무슬림 여학생 베검(Shabina Begum)의 히잡 착용을 금지하여 2년간 학교에서 수학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히잡 착용을 허락하는 다른 학교로 전학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히잡 착용에 대한 논쟁이 영국에서 계속되고 있다.

31 *The Times*, 2008년 10월 18일. 올라는 히잡 착용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조혼을 위해 외국에서 이주해 오는 여성들에 대한 이민법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2 <http://www.state.gov/r/pa/ei/bgn/3842.htm> (2008년 10월 31일) 미 국무성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미국 CIA에서도 로만 가톨릭 83-88%, 개신교 2%, 유대교 1%, 무슬림 5-10%로 기술하고 있다.

로 인구조사에서 개인의 종교를 묻지 않고 있지만, 2007년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1%는 로만 가톨릭, 31%는 무종교인으로 추정된다. 프랑스 이주 무슬림의 출신 국가별 분포를 살펴보면, 알제리 150만, 모로코 100만, 튀니지 35만, 터키 30만, 사하라남부 25만, 중동 10만, 아시아(인도와 파키스탄) 10만, 프랑스 개종자 4만, 불법 체류자 35만 등으로 추산되고 있다.³³ 주목할 점은 프랑스 무슬림은 북아프리카에서 이주한 아랍 무슬림이라는 사실이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무슬림들에게 사의를 표하기 위하여 1922년에 파리에 최초로 이슬람 성원(모스크)이 건축되었고, 2차 세계 대전 뒤에 폐허가 된 프랑스를 재건하기 위하여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북아프리카로부터 백만 명에 이르는 무슬림 노동자들이 프랑스로 이주했다. 현재 프랑스에서 ‘이슬람’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종교의 소속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문화적 유산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정기적인 예배와 금요일의 합동예배 및 라마단을 성실히 준수하는 ‘헌신적인’ 무슬림이 있는가하면, 알라(하나님)의 존재와 내세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문화적’ 무슬림도 있다.

1789년 프랑스혁명의 유산을 물려받은 프랑스정부는 중앙집권적인 행정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법 앞에서 모든 시민은 종교와 상관없이 공적 영역에서 권리와 의무가 평등하다는 원리를 강조해 왔다. 1901년 이래로 정부는 교회와 정치의 관계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세속주의”(secularism) 정책을 시행해 왔다. (앞에 살펴 본 영국과는 달리) 프랑스에서 종교는 사적인 영역에 제한되어 있으며, 공적인 영역으로는 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금기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 헌법도 공적 영역의 사안들은 어떤 종교기관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 문화의 비종교적이며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프랑스정부는 다양한 문화의 독특성이 표출되는 것을 제한해 왔고, 프랑스 문화안으로 식민지들의 다양한 문화를 포섭하는 제국의 이념과 가치를 확산시켜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프랑스어와 프랑스문화를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일에 노력해 왔다.³⁴

북아프리카의 프랑스와의 지리적 근접성은 프랑스정부가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의 무슬림을 프랑스문화로 동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북아프리카는 전통적으로 해변을

33 J. Lawrence, "Islam in France," http://www.brookings.edu/articles/2001/12france_laurence.aspx을 참고하라(2008년 10월 20일 접근).

34 Waardenburgh, *Muslims and Others*, p. 318.

35 마라부트(Marabout)는 서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의 이슬람지도자로서 꾸란을 가르치고 다른 무슬림의 도움을 받으며 유랑하는 정신적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아프리카 토착종교와 혼합되어 부적을 써 주거나 의례를 집행하고 미래를 예언하기도 한다.

중심으로 사는 아랍민족과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베르베르족(Berber) 사이의 인종적 긴장이 있었다.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도록 이슬람지도자(마라부트)³⁵ 와 신비주의종파(투루크)는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 전통적인 이슬람법학자들(울라마)도 이러한 인종적 갈등에 비판적이다.³⁶

북아프리카의 개인적 생활양식에 익숙해 온 무슬림들이 개인주의적 분위기가 팽배한 프랑스사회에 적응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반면에 정교일치에 익숙해 온 북아프리카출신 무슬림들이 정교분리를 지향하는 프랑생생활에 적응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최근까지도 무슬림들은 프랑스의 공적 영역에서 종교를 표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북아프리카의 노동자와 지식인은 프랑스로 이주하기 전에 이미 프랑스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해 있고, 프랑에서는 인종 간 결혼이 (영국에 비하여) 대중적으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주류사회에 통합하기가 비교적 용이해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프랑스 식민주의자들과 프랑스 남부사람들은 북아프리카에서 온 무슬림 노동자에 대하여 인종적 편견과 차별을 보이고 있다.³⁷

프랑스 이주 무슬림들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기도처와 성원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슬람에 대한 편견을 아직도 갖고 있는 지방의회를 설득하여 기도처나 성원(모스크)의 설립허가를 받는 일은 쉽지 않다. 때때로 파업과 같은 강경한 수단을 사용하며 무슬림들은 기도처 개설과 사용을 위하여 고용주와 행정 관료를 설득해 왔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무슬림여성의 히잡(머리가리개) 문제는 지역사회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항상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무슬림 여성들이 히잡을 착용하는 행동은 프랑스의 근본이념인 세속주의의 기초를 붕괴시키며, 동시에 종교로서 이슬람과 무슬림 정체성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매우 상징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프랑스정부가 도시 주변의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교육기회를 줄이자, 젊은 이슬람주의자들은 프랑스 도시들의 가난한 무슬림 지역에서 사회적이며 교육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청년들을 교육했다. 1954년 알제리 전쟁과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테러리스트의 공격은 프랑스 사회에 각인된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보다 악화시켰다.³⁸

프랑스에서는 기독교나 이슬람이 공립학교에서 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없으며, 이슬람

36 Waardenburgh, *Muslims and Others*, pp. 318-319.

37 Waardenburgh, *Muslims and Others*, p. 319.

38 Waardenburgh, *Muslims and Others*, pp. 319-320.

지도자(이맘)도 어떤 법적 권위를 지니지 못 한다. 이슬람과 관련된 문제에서 지방단체 장들은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기도처나 성원을 설립하는 것은 불허해 왔다. 국가적 차원에서 프랑스로도 1980년대와 1990년대 프랑스 무슬림을 대표하는 단체를 임의로 임명함으로써, 프랑스 무슬림 공동체 안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했고 이슬람에 대한 사회적 몰이해를 증폭시켰다. ‘세속주의’를 지향하는 프랑스에서 무슬림으로서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프랑스 이주 무슬림들은 이슬람 공동체를 위한 나름대로의 공간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프랑스인에게 각인된 반이슬람 정서를 개선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³⁹

프랑스에서 무슬림에 관한 담론은 영국에서의 경우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국가적 차원에서 종교로서 이슬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젊은 무슬림들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무슬림 공동체의 형제애를 강조하는 이슬람전통의 공동체적 경향을 대신하는 매우 개인적인 형태의 이슬람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무슬림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종교적 전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슬람종교지도자 교육과 이슬람학교 설립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프랑스 정부는 세속주의가 안고 있는 종교교육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변화의 노력을 하고 있다. 현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Nicholas Sarkozy, 1955-)는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지지를 표명해 왔다. 그가 내무부장관 시절 2003년 5월에 ‘이슬람 신앙의 프랑스 위원회’(French Council of Islamic Faith)가 프랑스 이주 무슬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설립되면서 정부와의 공식적인 대화와 소통의 동반자가 되었다. 이후 2004년 사르코지는 『공화국, 종교들, 희망』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젊은이들이 더 이상 세속적인 가치로 교육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며, 정교본리의 정책을 완화하여, 모스크를 보수·유지하고 이슬람지도자를 교육하는 데에 지원될 정부보조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⁴⁰

노동자로 온 1세대 무슬림들과는 달리, 프랑스 본토에서 태어난 2세대와 3세대 무슬림들은 프랑스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도시 교외의 정부임대주택에 거주

39 Waardenburgh, *Muslims and Others*, p. 321.

40 Mayanthi Fernando, “Republic’s the Second Religion: Recognizing Islam in France,” *Middle East Report*, summer 2005, <http://www.merip.org/mer/mer235/fernando.html> (2008년 10월 23일 접근) 이슬람 국가들의 자금과 이맘이 프랑스 이슬람 공동체에 유입되는 것은 프랑스의 사회 안정과 치안 유지를 위해 부정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하며 높은 실업률과 심각한 사회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의 온상에서 성장한 무슬림 청년들은 프랑스사회의 범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2005년 10월 27일에 북아프리카 이주민 2세대와 3세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방화와 소요 사건은 프랑스 전체로 확산되면서 11월 16일까지 20일간 계속되었다. 연일 세계 언론들은 불타는 차량과 건물을 방송했고, 세계인들은 그 원인을 궁금해 했다.⁴¹ 일차적으로 무슬림 청년들과 무슬림 부모들에게 그 책임이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이며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슬람에 대한 오랜 프랑스인의 편견과 사회적 차별에 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 그 사건으로 8900여대의 차량이 불탔고, 2900명이 체포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무슬림 2세대와 3세대였다. 모든 종교인들에게 종교적 진리는 절대적이다. 무슬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세속주의'는 종교인으로서 무슬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적 독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프랑스 사회를 통합해 왔다. 프랑스 가톨릭교회의 급속한 세속화를 초래했던 세속주의가 이제 이슬람이라는 강력한 종교공동체를 만나 고전하고 있다.

5.3. 독일 이주 무슬림(German Muslim)의 현황: 보이지 않는 노동자

독일에는 현재 8천 2백만의 총 인구 중 약 3%인 3백만의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다. 독일은 20세기 유럽에서 정치적으로 주도적인 영향력을 펼쳐왔지만, 프랑스와 영국과는 달리 이슬람 지역에 장기간 독일의 식민지를 만들지는 못했다. 대신에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 주축국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오스만 제국(Ottoman Empire, 1293-1922)과 정치적 협력을 하면서 이슬람을 본격적으로 접하게 되었다. 이후에 터키 공화국과 독일의 정치적 우호관계가 유지되었고, 1962년 조약을 통하여 무슬림 '손님노동자'(Gastarbeiter)들이 대거 독일로 이주했다. 지금까지도 90%이상의 무슬림이 터키출신이지만 독일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⁴² 서구문화를 잘 알고 있는 터키 무슬림들도 독일로 이주하게 되면 독일어라는 문화적 장벽에 부딪혀 독일사회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경험한다. 독일정부에서 문화적이며 종교적인 사항들은 각 지역의 주정부가 결정하고 관할한다. 그리고 구서독지역보다 구동독지역에서 외국인에 대한 폭력사건들이

41 BBC News, 2005년 11월 2일, <http://news.bbc.co.uk/1/hi/world/europe/4399748.stm> (2008년 10월 20일 접근)

42 Waardenburgh, *Muslims and Others*, p. 322.

자주 보고되고 있다.⁴³

독일에 있는 터키 이주 무슬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터키 현지의 종교적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터키에서는 종교위원회(디야네트)가 설립되어 모든 종교에 관련된 사항을 통제하고 있다.⁴⁴ 그러므로 종교위원회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수니파 이슬람에서 벗어난 형태의 이슬람들을 믿는 무슬림들은 통제와 박해를 받아왔고, 일부는 독일로 이주했다. 세속국가를 지향하는 터키의 입장에 반대하여 소외되거나 금지되었던 대중적인 형태들의 민속 이슬람들이 독일 무슬림 사회에서는 번성하고 있다. 그들은 터키를 다시 이슬람국가로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는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혹은 터키정부의 종교지배를 비판한다. 터키에서 ‘이단’으로 간주되는 알레비파(Alevi)와 쿠르드족(Kurd)⁴⁵이 독일 무슬림 공동체의 상당부분을 이루고 있다. 알레비파는 모스크에 가지 않고 ‘세메비’(Cemevi)라는 회당에서 남녀가 음악에 따라 원을 그리며 춤을 춘다. 시아파 무슬림처럼 무함마드와 알리를 함께 숭상하지만 타종교에 대하여 매우 개방적이며 인간애와 황금률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신비주의 종파와 소수 이슬람 종파들이 독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물론 독일에는 발칸반도와 북아프리카에서 온 무슬림들도 있다. 이러한 무슬림의 현존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은 기독교와 유대교처럼 주마다 공인된 이슬람 기관을 통하여 공식적인 대화의 동반자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⁴⁶

영국이나 프랑스의 무슬림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거의 대부분 독일 무슬림들이 터키에서 오거나 터키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독일 무슬림은 ‘무슬림’보다는 일반적으로 ‘터키인’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무슬림과 프랑스 무슬림은 서유럽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와 연관되어 있지만, 독일 무슬림은 제국주의의 죄책감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독일 무슬림은 독일의 주류 기독교 문화 안에 큰 문제없이 공존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통과 대화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터키 이민자들도 주류 이슬람

43 Liz Fekete, "Anti-Muslim Racism and the European Security State," *Race and Class*, vol. 46, no. 1 (2004), pp. 3-29.

44 Gazi Erdem, "Religious Services in Turkey," *The Muslim World*, vol. 98 issues 2-3, pp. 199-215. 터키에서 1924년 칼리프제도가 소멸되면서 종교위원회(Diyanet, Presidency of Religious Affairs)가 설립되었다. 현재 독일에도 종교위원회 지부를 설치하여 독일에 거주하는 터키 무슬림의 종교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45 쿠르드족은 터키인구의 15%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소수 민족이다. 1930년대부터 계속되는 터키어 전용을 강요하는 터키정부의 동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쿠르드족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켜왔으며, 일부 쿠르드 민족주의자들은 터키정부로부터 독립을 요구함으로써 정치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46 Waardenburgh, *Muslims and Others*, p. 322.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이슬람 신앙을 표현하고 있고, 터키 출신 기독교인과 유대인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터키 이슬람의 다양성 때문에 이슬람으로 개종한 독일시민들이 세계의 주류 이슬람을 비판하곤 한다. 표현의 자유가 허락된 독일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슬람의 급진화와 정치화에 대한 자성과 변화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최근까지 독일 이슬람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을 설립하려는 시도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지만, 함부르크대학교와 베이로이트대학교에 ‘무슬림의 시각에서’ 이슬람을 연구하는 연구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독일어에 익숙한 2세대와 3세대 터키계 독일 무슬림들이 등장하면서 이슬람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와 소통의 가능성이 보인다. 함부르크에는 이란계 시아파 무슬림 공동체가 있으며, 이슬람 신비주의 종파들도 베를린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⁴⁷

최근 독일 무슬림에게 가장 큰 문제는 내부적으로는 터키인과 쿠르드족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며, 외부적으로는 독일 젊은이들에 의해 자행되는 무슬림들을 향한 인종적·종교적 편견과 폭력의 증가이다.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교사의 히잡 착용은 금지되었지만(프랑스의 경우와는 달리) 학생의 히잡 착용은 여전히 허용되고 있다. 독일 기독교 교회도 무슬림과의 대화를 시도하고는 있지만, 공식적인 공공기관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유럽 전역에 확산되어 있는 이주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기독교 다수 사회에서 소수로 살아가는 독일 이주 무슬림에게도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다.

5.4. 유럽 미디어의 이슬람에 대한 왜곡: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이슬람에 대한 왜곡된 콘텐츠가 미디어를 통하여 널리 유포되고 있다. 세속화가 가장 심화되어 있는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무슬림들이 숭상하는 마지막 예언자 무함마드, 꾸란, 히잡의 착용 등 이슬람 문화의 전반을 비판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제작되어 공개되면서 유럽의 이주 무슬림 공동체를 넘어 전 세계의 무슬림 공동체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덴마크는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루터교가 국교이며 국민의 92%가 개신교 루터교인이다. 이슬람은 기독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종교로서 16만 명의 무슬림

47 Waardenburgh, *Muslims and Others*, pp. 323-324.

이 거주하고 있다.⁴⁸ 거의 대부분 1970년대 이후 노동자나 망명자의 신분으로 이주해 왔다. 그러나 주류 덴마크 사회에 진입하지 못한 채 소외되어 높은 실업률과 범죄율을 보이고 있다. 첩탐과 돔의 형식을 가진 이슬람 성원은 없지만,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덴마크 일간지 율란트 포스텐(Jyllands-Posten)은 2005년 9월에 예언자 무함마드를 묘사한 12편의 만평을 동시에 공개함으로써 전 세계 무슬림들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12편 만화 가운데 한 만화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점화된 다이어마이트가 설치된 터بين을 쓰고 있고, 그 터빈 위에는 무슬림의 다섯 가지 의무 중 첫 번째 기둥인 신앙고백(샤하다)이 쓰여 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이다.”라는 이슬람의 신앙고백을 예언자와 함께 ‘폭파’시킨다는 의미에서 이슬람을 비하하는 만화였다. 그리고 또 다른 만화는 검은 니카브(히잡의 일종)를 착용한 두 무슬림 여인 앞에서 칼을 든 예언자 무함마드의 눈이 검은 가리개로 가려져 있다. 수니파 무슬림들은 우상숭배를 경계하여 형상으로 만들지 않는 예언자를 무지와 폭력의 상징으로 묘사했다는 점에서 무슬림들에게는 큰 충격을 주는 만화였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 만화가들을 암살하는 데에 현상금을 걸었으며, 무슬림들은 대규모 시위를 하며 덴마크 대사관을 방화하거나 덴마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세계적으로 벌였다. ‘표현의 자유’와 ‘종교에 대한 존중’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보다 주목해야 할 사항은 유럽의 세속주의와 이슬람 원리주의가 미디어를 통하여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정치인의 발언과 단편 영화제작이 이슬람을 비판하는 기제로 사용되어 왔다. 90만 명의 무슬림이 거주하는 네덜란드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담론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다.⁴⁹ 무슬림들은 대부분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이후 이주해 온 노동자와 이민자로서 터키, 모로코, 네덜란드의 구식민지(수리남, 인도네시아) 출신이 많다. 21세기에 들어 네덜란드 무슬림 공동체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슬람을 “적개적인 종교”로 간주하며 무슬림 이주를 반대했던 정치인 펴 포르튼(Pim Fortuyn)이 2002년 5월 살해되었다. 그리고 2005년 11월에는 단편영화 『복종』(Sub-

48 http://www.islam.dk/content.asp?art_id=28 (2008년 10월 26일 접근). 자료에 따라 차이가 많다. Operation World (2001)에 따르면, 기독교인이 86%, 무종교인이 11%, 무슬림이 3%로 조사되었다.

49 Operation World (2001)에 따르면, 기독교인 56%, 무종교인, 38%, 무슬림 5% 등으로 나타났지만, Euro-Islam에 따르면, 네덜란드 무슬림을 백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http://www.euro-islam.info/spip/article.php3?id_article=294 (2008년 10월 26일 접근)

mission, 이슬람)을 제작한 무신론자 테오 반 고흐(Theo van Gogh)가 모로코 출신의 무슬림청년에 의하여 피살되었다. 그의 영화는 여성을 차별하는 꾸란의 내용과 무슬림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루고 있다. 올해 3월 27일 네덜란드 하원의원 제르트 빌더스(Geert Wilders)가 단편영화 『피트나』(Fitna, 시험)를 제작하여 이슬람의 폭력성을 공개적으로 고발했다. 이 영화는 최근 무슬림들의 테러와 폭력사건을 꾸란의 내용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네덜란드에서 무슬림 공동체의 증가와 확산을 “이슬람화”(Islamization)로 해석하며 경계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스웨덴은 18세기부터 오스만 제국과 정치적 우호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유럽국가 가운데 일찍 이슬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Operation World*(2001)에 따르면, 스웨덴은 2000년까지 루터교가 국교였으며, 기독교인이 55%, 무종교인이 42%, 무슬림이 3%입니다. 현재 28-30만에 이르는 무슬림들은 스웨덴에 살고 있다. 최근 2007년 스웨덴 설치미술가 라르스 빌크스(Lars Vilks)가 무함마드를 순환도로 개의 형상(roundabout dog)으로 묘사한 만화가 공개되면서 스웨덴을 비롯한 세계 무슬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미디어를 통하여 특정 종교의 왜곡된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한편에서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유럽의 무슬림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종교인들이 신앙하는 대상에 대한 적절한 존중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예술과 외설, 자유와 방종, 존중과 맹신을 분별하는 범주에 대한 진지한 학문적 논의는 독일 사회에서 계속될 필요가 있다.

6. 이슬람의 다양한 세계관과 유럽에 대한 새로운 인식

: 이슬람 ‘선교의 영토’의 재발견

지금까지 우리는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이주 무슬림의 현황과 그들이 유럽에서 직면한 다양한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촉발된 이슬람의 왜곡된 담론의 사례들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유럽 이주 무슬림은 세속주의가 팽배한 유럽에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유럽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스위스 무슬림으로서 최근 옥스퍼드대 교수가 된 타리크 라마단(Tariq Ramadan)은 유럽 무슬림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슬림들이 이주해 온 국가의 이슬람 전통과

는 구별되는 자신이 거주하는 유럽 문화와 사상에 맞는 새로운 무슬림의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유럽의 이슬람을 ‘자유주의적’이며 ‘다원주의적’으로만 보는 획일적인 기존의 설명방식을 비판하며, 오히려 이슬람과 무슬림의 정체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해 왔다.⁵⁰ 라마단은 유럽의 무슬림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⁵¹

첫째, “법학자 전통주의”(Scholaristic Traditionalism)는 꾸란과 순나에 권위를 두면서 여러 이슬람 법학파(하나피, 말리키, 샤피, 한발리 등) 중 하나에 소속하여 엄격하고 배타적인 해석을 내리는 입장이다. 소속된 학파의 법학자가 내린 해석은 꾸란과 순나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로운 해석이나 주석의 발전이 불가능하다. 이 그룹에 속하는 무슬림들은 대체로 데오반디파, 바렐위파, 알 알 순나, 탈레반, 탈리크 이 자마트 등이 있다. 전통주의자는 8세기부터 11세기 사이에 결정된 의례나 복장의 규율을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므로 근대화나 사상의 자유에 의지하여 독창적인 해석(이즈티하드)을 내리거나 재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이주해 온 영국 무슬림과 터키에서 이주해 온 독일 무슬림이 주로 이러한 ‘법학자 전통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전통주의자는 종교적 영역에만 주로 관심을 두기 때문에 유럽의 주류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유럽의 문화를 거부한다. 그들은 특정 이슬람 법학자의 해석에 기초하여 이슬람 세계관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둘째, “살라피 문자주의”(Salafi Literalism)는 먼저 살펴 본 전통주의와는 달리, 꾸란을 해석할 때 특정 법학파의 해석이 개입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들은 예언자 무함마드를 알고 있던 처음 3세대까지의 무슬림들을 가리키는 ‘살라프’(salaf)의 해석의 권위를 따른다는 의미에서 스스로를 ‘살라피’(salafi)라고 부른다. 그들은 꾸란과 순나는 어떤 주석이나 학파의 해석 없이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살라피 문자주의자’는 교리 문제에 있어서 비이슬람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대신에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집트, 시리아 등의 학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갖는다. 이들은 ‘전쟁의 영토’(다르 알 하르브)의 개념을 가지고 유럽의 문화적 영향을 거부하며 문자주의적인 이슬람 세계관을 구

50 라마단 교수의 홈 페이지 <http://www.tariqramadan.com/>를 참고하라. 라마단 교수는 제네바대학교에서 아랍어와 이슬람학으로 박사를 마쳤으며, 미국 노트르담 대학교를 사임하고 2005에 옥스퍼드대학교 신학부 이슬람학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7년 라이덴 대학교가 그를 이슬람 교수로 초빙했지만 거절했다.

51 Tariq Ramadan, *Western Muslims and the Future of Isla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p. 24-28.

축하려고 노력한다.

셋째, “살라피 개혁주의”(Salafi Reformism)는 문자주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꾸란과 순나의 해석에서 특정 법학자의 개입을 반대한다. 그러나 8세기부터 10세기의 법학자가 지닌 해석의 권위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상황과 쟁점에 따라 개인적인 해석(이즈티하드)을 어느 정도 허용한다는 큰 차이를 보인다. 그들은 이슬람 법률체계에서 개인적 해석은 객관적이며 필수적이고 지속적인 요소라고 믿는다. 유럽에 살라피 개혁주의들이 이주하게 된 것은 이집트와 리비아의 이슬람 형제단이 등장하는 것을 비롯하여, 튀니지, 모로코, 알제리에서 과격한 이슬람주의자들이 제재를 가했기 때문이다. 개혁주의자는 개혁의 정신을 서구문화에 적용하면서도 특정 이념에 고착되지는 않았다. 라마단에 따르면, 살라피 개혁주의의 목표는 “무슬림 정체성과 종교적 신행을 보호하고, 서구 헌법체계를 인정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시민으로서 관여하고, 자신이 속한 국가에 진정한 충성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⁵²

넷째, “정치적 문자주의 살라피즘”(Political Literalist Salafism)은 정치활동을 강조하며 유럽의 지배세력에 반대하며 칼리프제도를 대신하는 범국가적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려 한다. 급진적인 혁명사상을 가지고 서구사회와 어떤 형식으로도 관계와 협력을 거부하는 대표단체로는 히즈브 알 타흐리르(해방정당)와 알 무하지린(이주자)이 대표적이다. 영국에서 두 그룹을 지도했던 오마르 바크리 무함마드(Omar Bakri Muhammad)는 레바논으로 출국한 후에 영국정부가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

다섯째, “자유주의적 혹은 합리주의적 개혁주의”(Liberal or Rationalist Reformism)는 서구의 식민주의에 영향을 받아 유럽의 세속주의를 이슬람 정체성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자유주의자는 터키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크(Mustafa Kemal Ataturk, 1881-1938)의 세속주의를 지지하며, 종교와 정치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한다. 유럽에서 자유주의자는 무슬림이 서구문화와 통합하여 서구의 생활방식을 수용한다. 매일 종교를 실천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수준에 종교가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종교적 상징을 공적인 영역에서 표현하는 것은 원리주의나 분리주의로서 규정하며 반대한다. 자유주의자에게는 꾸란과 순나의 권위보다는 이성과 개인의 판단이 무슬림으로서 행동하는 사회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여섯째, “신비주의”(Sufism)는 다양한 신비주의 종파가 있지만 영적인 생활과 신비적 경험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물론 신비주의자도 공동체와 사회참여의 측면이 있다. 꾸란은 명상과 이해의 중심에 있으며 제자들과 스승(shaykh)을 연결시켜 준다.

요컨대 라마단의 여섯 가지 유형에 따르면 유럽의 이주 무슬림은 한 축에는 꾸란과 하디스를, 또 다른 한 축에는 이성을 두고 그 사이에서 종교적 권위를 어느 쪽에 두느냐에 따라 세계관의 차이를 보여준다. 라마단의 모델은 예일대의 문화신학자 리처드 니부어(Richard Niebuhr)가 제시한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를 조명한 다섯 가지 유형들과 유사하다.⁵³ 니부어에 따르면, 기독교 세계관은 ①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② 문화의 그리스도, ③ 문화 위의 그리스도, ④ 역설적 관계의 그리스도와 문화, ⑤ 문화의 변형자 그리스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라마단이 제시한 “살라피 개혁주의”는 니부어의 “문화의 변형자 그리스도”처럼 중립적이며 개혁주의적인 입장을 띠고 있다.

그렇다면, “살라피 개혁주의” 세계관을 지닌 무슬림과 “문화의 변형자 그리스도” 모델을 취하는 기독교인이 같은 공동체에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 라마단은 전통적으로 무슬림이 지닌 유럽에 대한 세계관의 편견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무슬림은 전통적인 이분법에 따라 세계를 “이슬람의 영토”(다르 알 이슬람)와 “전쟁의 영토”(다르 알 하르브)로 구분해 왔다. 이 이분법을 가지고 이슬람 국가에 거주하는 무슬림과 비이슬람 국가에서 거주하는 무슬림이 서로 다른 우주관을 지니고 살아왔다. “이슬람의 영토”는 무슬림들이 안전하게 이슬람 신앙을 실행하는 데에 두려움이 없는 곳이다. 반면에 “전쟁의 영토”는 법체계와 정치체계가 비이슬람적인 유럽과 같은 곳이다.⁵⁴ 이 기준에 따르면, 무슬림 다수가 거주하는지의 여부는 중요치 않다. 오히려 무슬림이 보호를 받으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소외된 종파의 무슬림에게는 주류 무슬림이 다수인 지역보다는 주류 무슬림이 소수인 유럽이 “이슬람의 영토”일 수 있다. 이분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휴전상태를 의미하는 제 3의 영토로서 “조약의 영토”(다르 알 아흐드)가 제안되기도 했다.

라마단은 이분법이나 삼분법에 기초한 전통적인 분류법 대신에 인간이 사는 모든 지역(오이쿠메네)을 포함하는 영토를 “신앙고백의 영토”(다르 알 사하다) 혹은 “선교의 영토”(다르 알 다와)로 볼 것을 제안한다.⁵⁵ 이슬람의 진리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모든 영

53 H. Richard Niebuhr, *Christ and Culture*, (New York: Harper & Row, 1951).

54 Ramadan, *Western Muslims*, p. 65.

55 Ramadan, *Western Muslims*, p. 73.

토에 전해질 책임이 모든 무슬림들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무함마드가 메카시대에 소수의 무슬림을 이끌고 평화적 선교를 했던 것처럼 유럽 무슬림들은 알라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 그는 사람들 가운데 선행을 하며 살면서 신앙고백을 모든 인류에게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7. 결론: 개종에서 변혁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유럽에서 이슬람이 어떻게 확산되어 왔는지, 그리고 세속화된 유럽 문화와의 갈등을 극복하며 2세대·3세대 유럽 이주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세계종교’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슬람은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선교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01년 9·11사태 이후 미국정부는 수니파 이슬람 단체 탈레반 측에 알 카에다를 비롯한 테러리스트의 이양을 요구하며 전쟁을 시작했다. 이렇게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2007년 7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단기 ‘선교’(mission) 봉사를 하던 23명의 한국인이 탈레반에 의하여 피랍되었고, 그 중 2명이 ‘순교’(martyrdom)하였다.⁵⁶ 이 사건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한국 기독교회사와 선교역사에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한국 교회와 사회 안에 이슬람과 이슬람 선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성장위주로 경쟁해 온 선교 정책과 방식에 대하여 한국교회가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무슬림들은 이슬람 성원과 기도처 및 대학교를 중심으로 출판사업과 방송 및 미디어를 통하여 서구 편향적으로 왜곡되어 온 이슬람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용인시 부근에 이슬람대학교를 설립할 계획이고, 2010년 아시안게임을 맞아 인천에는 이슬람 센터와 모스크가 설립될 계획이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한국사회는 ‘단일문화’(mono-culture)에서 ‘다문화’(multi-culture)로 급변하고 있다. 미국사회를 하나의 단일문화로 녹아드는 ‘용광로’(melting

56 “‘2007 아프간’ 못 다한 이야기,” *Christianity Today*, 한국판 2008년 7월호, pp. 49-55. 최근 피랍되었던 청년들의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선교’와 ‘순교’라는 용어를 ‘2007년 아프간 사태’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pot)라고 비유하는 대신에 다양한 문화들이 상호 공생하는 ‘야채그릇’(salad bowl)이라고 한 종교학자가 설명할 때, 필자는 그 용어를 한국 사회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외국인 이주자와 국제결혼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이제 ‘단일민족’이라는 용어를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며 필자는 유럽 이주 무슬림 공동체의 최근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이슬람과 무슬림의 선교와 사역에 대하여 앞으로 한국의 기독교 교회가 나가야 할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종교로서 이슬람을 “무슬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학문적 관심과 노력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 사실 이슬람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 관심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져야 할 때이다. 다양한 형태로 다가오는 이슬람과 무슬림 공동체의 현존을 “편견 없이” 그리고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교사, 목회자, 평신도, 그리고 이슬람전문가가 교회 안에 필요하다.⁵⁷

이 점에서 전재욱교수의 기도와 헌신으로 1992년 설립된 한국이슬람연구소가 올해 10주년을 맞는 햇볼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앞으로 연구소가 이슬람을 이해하고 무슬림과 대화하며 선교하는 데에 한국 교회와 사회에 큰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한다. 이슬람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겸손함과 담대함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형제’인 이스마엘의 후손과 나누며 증언하기 바란다.

영국과 미국에서 필자가 공부했던 연구소들 가운데에도 좋은 모델들이 있다. 미국 코네티컷주에 위치한 하트포트 신학대학원(Hartford Seminary)에는 던컨 블랙 맥도날드 연구소(Duncan Black Macdonald Center)⁵⁸가 있다. 1893년에 설립된 이 연구소는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이슬람 관계를 연구하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연구소이며, 1911년부터는 세계적 권위를 가진 『무슬림세계』(*Muslim World*)라는 학술지를 지금까지 출판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예일대 인근에 위치한 해외선교연구소(Overseas Min-

57 안신, 허우성, “예언자 무함마드의 평화사상에 대한 연구 - 소통과 공존의 지하드론을 중심으로,” 『한국 이슬람학회 논총』, 제 18-2집, 2008, pp. 23-45.

58 <http://macdonald.hartsem.edu>를 참고하라.

59 필자는 OMSC에서 Andrew Walls, Dudley Woodbury, Lamin Sanneh, David Kerr, 전재욱교수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다.

istries Study Center)⁵⁹도 다양한 이슬람선교의 경험을 지닌 선교사와 선교학자가 안식년(혹은 연구년)을 보내며 상호 만남과 배움을 통하여 경험과 이해의 폭을 축적해가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이슬람연구소(Oxford Centre for Islamic Studies)와 2008년 사망한 데이비드 커(David Kerr)가 1976년 버밍햄에 설립한 ‘이슬람과 기독교인-무슬림 관계 연구소’⁶⁰도 영국에서 이슬람과 기독교의 이슬람선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둘째로, 한국 교회의 선교 방식에 대한 겸손하고 냉철한 반성이 필요하다. 교회의 선교는 생명활동이다. 따라서 선교를 하지 않거나 선교를 하지 말라는 것은 교회의 생명을 끊는 사망선고와도 같다. 21세기의 한국 선교사는 제국주의 시대에 서양 선교사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할 필요가 없다. 인종적·문화적 우월주의를 버리고 토착교회의 지도자와 협력하여 선교현장의 ‘필요’를 알고 토착민과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필요하다. 파송되는 지역의 종교와 문화를 잘 이해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고도 기독교의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종교학, 지역학, 인류학, 사회학, 농학, 공학, 의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 복음전도와 사회봉사라는 두 축 위에 균형 잡힌 건전한 선교관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한국 기독교는 한국 무슬림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한국 상황에 맞는 사역모델을 구상하고 돌봄과 섬김의 사역을 해야 할 것이다. 서양 기독교와 달리, 한국 기독교는 무슬림에게 억압적인 제국주의적 종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지 않았다. 현재 서양 기독교가 십자군전쟁과 식민지역사로 인하여 타문화 선교에 대하여 심리적 부담감과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 기독교는 오히려 일본의 제국주의를 극복하고 민족주의와 근대화를 성취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자유와 해방’의 종교이다. 이러한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강조하며 이슬람 지역에 파송될 선교사와 한국 무슬림을 위한 사역자를 교육하고 훈련한다면, 인종적·문화적 벽을 보다 쉽게 허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미 살펴 본 것처럼, 영국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진정한 소통을 결여한 채 무슬림공동체를 주류 영국사회로부터 소외시키고 격리시켜 전체 영국 공동체의 큰 단절을 가져왔다. 프랑스의 “세속주의”(secularism)는 공적 영역에서 이슬람을 종교로 인정하지 않고 사적 영역으로만 제한함으로써 무슬림 공동체 가운데 프랑스 주

60 최근 버밍햄 대학교에 통합되어 이슬람 연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류사회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켰다. 또한 독일의 “무관심”도 무슬림의 존재를 무시한 채, 독일의 ‘시민’이 아닌 언젠가는 떠날 ‘노동자’로 차별해 왔다. 그러므로 유럽의 선례를 교훈삼아 한국 교회는 이슬람 지역 선교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무슬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적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세속화된 유럽에서 무슬림과 같이 종교적 소수자로 살아가는 유럽의 교회는 더 이상 사회를 변혁할 힘을 거의 상실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는 다르다.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힘과 비전을 잃지 않았다. 한국 교회는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적 변혁과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모습을 세계 무슬림 공동체에 보여주어야 한다. 유럽에서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세속주의 앞에 모두 종교적 소수자로 전락했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기독교 공동체가 한국 사회를 위해 봉사(디아코니아)할 기회와 역량이 많다.

넷째로, 다문화현상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건전한 선교를 위한 보다 유연하고 포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개종, 개인구원, 교회설립과 같은 고전적인 선교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선교현장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를 들어야 한다. 경제적 이유로 혹은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오게 된 외국인들이 겪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돕는 구체적인 현존과 동행 그리고 나눔의 사역이 필요하다.

최근 한 조사에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 가운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이 고등학교는 70%, 중학교는 40%, 초등학교는 15%로 나타났다.⁶¹ 이 점에서 무슬림을 포함하여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미국과 같이 한국에서도 ‘정교분리’ 정책의 영향을 받아 교회의 사회개혁을 위한 참여와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다. 사실 유럽에서 기독교의 세속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것은 바로 기독교가 사회와 문화에 갖는 변혁의 힘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 기독교 공동체는 개인구원과 복음화의 영역을 넘어 사회전반에 대한 변혁과 봉사로 그 섬김의 영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무슬림들은 한국사회를 매우 충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종교의 공백”이 공적 영역에서 느껴지기 때문이다. 한국에 기독교인과 불자가 많다고는 하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익명의 무신론자”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는 교인인데, 교회 밖에서는 교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의 무슬림은 인간의 모든 영역을 이슬람법으로 통치하는 정교일치를 주장한다. 때때로 종교학자로서 한 신앙인으로서 이슬람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각 분야에서 자신들의 신앙고백을 가시

61 『조선일보』, 2008년 10월 25일.

적으로 실천하고 표현하는 자신감과 열정이 부러울 때도 있다.

필자는 한국교회가 현재의 변화된 다문화 다종교의 상황을 기독교의 ‘위기’가 아닌 선교와 갱신의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앞으로 무슬림을 향하여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21세기 선교와 사역의 모델은 다음과 같은 전재옥교수가 언급한 예수의 선교모델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예수는 개종을 권하는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일그러지고 분노하고 격리되어 있으며 소외시키는 현장에서, 언제나 고치고, 잠잠하게 하고, 돌을 하나로 받아들이게 하고, 소속시키는 활동을 하였고, 예수 자신이 그러한 선교의 모든 차원을 생애에서 보여주었다. 그러기에 예수의 선교에 깊이 참여한다는 것은 정복이나 내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에 성육되어 있는 것이다.⁶²

62 전재옥, 『기독교와 이슬람』, 264.

Abstract

Islam as a World Religion : Muslims in Europe and Korea

Ahn, Shin

Christianity, Buddhism, and Islam are world religions who proclaim their 'truths' to different cultures and peoples. In spite of their expansion to the world, Christianity and Buddhism lost their influence in original places (Israel and India), but Islam still holds the strong connection with Arabia as the center of the Muslim world and expanded their territories of Islam to Africa, Asia, and recently even to the West.

According to Islamic view, the number of Muslim population is estimated to 1.6 billion. There are about 54 million Muslims in Europe except Turkey, which has 70 million Muslims. I argue that the presence of Muslims in Europe and Korea is not 'a crisis of church' but 'a chance of mission.'

First, there are key differences between Christianity and Islam, which we should remember in understanding Islam. Korean Muslims identify both negative and positive respects of Islamic Dawah(mission) in Korea. They challenge Christians to rethink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mission in Korea.

Second, Europeans now experience "post-Christian era." Christianity does not play an important role of forming, reforming and transforming individuals and societies in Europe. I analyze the present situation of secularization by examining the religiosity of Europeans. Though they confess the existence of God, they don't participate in the life of visible churches and missions.

Third, the presence and increase of Muslims in Europe is directly related to the Western colonialism, especially of Britain, France, Germany, and Netherlands. European Christians feel guilty of the past in exploiting non-Western peoples and even converting them to Christianity, which I can not agree to.

Fourth, I examine the present situation of European Muslims and their problems of creating new identities: British multi-culturalism, French secularism, and German mistreatment, and distorted images of Islam in Denmark, Netherlands, and Sweden.

Fifth, exploring the viable types of European identity, which are suggested by Fariq Ramadan, I argue that Muslims can categorize Europe and Korea as a territory of mission, not as those of war.

In conclusion, I proposed four directions for the 21st century Korean mission to Muslims and their Islams. ①deep and empathetic understanding of Islam from Muslim perspectives, ②rethinking of Korean missions and ministries, ③creation of church ministry models for multi-cultural(or Muslim) families in Korea, and ④moving of Muslim hearts by shifting the paradigm of mission from conversion to transformation (a mission balanced between evangelicalism and diakonia(service)).

참고문헌

- 안신, “잉글랜드와 웨일즈 종교교육의 최근 변화와 한계 - 1988년 교육개혁법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48집 (2007년 여름), pp. 241-261.
- _____, “이슬람 다와와 기독교 선교에 대한 비교연구 - 폭력과 비폭력의 경계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50집, (2008년 봄): pp. 219-245.
- _____, 허우성, “예언자 무함마드의 평화사상에 대한 연구 - 소통과 공존의 지하드론을 중심으로,” 『한국 이슬람학회 논총』, 제 18-2집, (2008): pp. 23-45.
- 전재욱, 『기독교와 이슬람』,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 전재욱 편, 『아시아 무슬림 공동체』, 서울: 예영, 1998.
- 최영길 역, 『성 꾸란-의미의 한국어 번역』, 메디나: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 1997.
-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한국 이슬람 50년사』, 서울: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2005.
- Esposito, John. *Religion and Globalization - World Religions in Historical Perspectiv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European Commission, *Special Eurobarometer 225/ Wave 63.1*, June 2005.
- Fekete, Liz. “Anti-Muslim Racism and the European Security State,” *Race and Class*. vol. 46, no. 1 (2004): pp. 3-29.
- Fernando, Mayanthi. “Republic’s the Second Religion: Recognizing Islam in France,” *Middle East Report*. summer 2005.
- Gill, Robil, *The ‘Empty’ Church Revisited*. Hants: Ashgate, 2003.
- Goddard, Hugh. *A History of Christian-Muslim Relations*. Chicago: New Amsterdam Books, 2000.
- Hinnells, John R. “The Study of Diaspora Religion,” ed. John R. Hinnells. *A New Handbook of Living Religions*. Oxford: Blackwell, 1997.
- Knott, Kim. “The Religions of South Asian Communities in Britain,” ed. John R. Hinnells, *A New Handbook of Living Religions*. Oxford: Blackwell, 1997.
- Niebuhr, H. Richard. *Christ and Culture*. New York: Harper & Row, 1951.
- Partridge, Christopher. *The Re-Enchantment of the West*. London: T & T Clark, 2005.
- Rivera, Luis N. *A Violent Evangelism: the Political and Religious Conquest of the America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 Ramadan, Tariq. *Western Muslims and the Future of Isla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Ruthven, Malise. *Historical Atlas of the Islamic Wor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Said, Edward W. *Orientalism*. New York: Random, 1978.

Waardernburg, Jacques. *Muslims and Others : Relations in Context*. Berlin: Walter de Gruyter, 2003.

<http://www.islamicpopulation.com>

<http://www.state.gov/r/pa/ei/bgn/3842.htm>

J. Lawrence, "Islam in France," http://www.brookings.edu/articles/2001/12france_laurence.aspx

Mayanthi Fernando, "Republic's the Second Religion: Recognizing Islam in France," *Middle East Report*, summer 2005, <http://www.merip.org/mer/mer235/fernando.html>

<http://news.bbc.co.uk/1/hi/world/europe/4399748.stm>